

문화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공동 책임감독 인터뷰

행복한 책임기

최재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효형출판권>

영화 '연가시'는 기생충에 상상력의 기반을 둔 작품이다. 연가시는 철사 모양을 한 기생충으로 유생(幼生)은 메뚜기나 사마귀 따위의 곤충에 기생하고 성체(成體)는 민물 속에서 독립생활을 한다. 한마디로 숙주의 뇌를 장악하여 조종하는 기생생물이다.



이 책에서도 대부분의 생물들이 암수로 나누어 짝치 아픈 성문제를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열쇠를 여쭙면 기생생물이 쥐고 있을 거라고 말한다.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은 개체수를 늘리는 일에는 결정적으로 유리하지만 모두 똑같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치명적인 병원균(기생충)이 돌면 한꺼번에 절멸한다.

절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암수가 나누어 마음에 맞는 배우자를

의 연속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부분별한 개발에서 비롯됐으며 그 바탕에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가 깔려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뇌를 조종하는 것은 '자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것이 결국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인간도 진화법칙에 자유로울 수 없어

찾아야 하고 종건 싫건 서로 협조해서 자식을 낳아야 한다. 서로 다른 유전자를 섞는 유성생식을 해야 병원균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성과 생존이 기생충에 달려 있다면 가히 그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뒤집어 생각할 수도 있겠다. 기생생물이 몸 속으로 들어와 '나'를 조정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소름끼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그 목적이 개체의 번식이지 전 생물의 멸종은 아니다.

지난해 태국에 내린 비는 방콕을 포함한 전 국토의 3분의1을 물에 잠기게 했다. 며칠 전 중국에서도 큰 홍수가 났고 지금 한반도는 폭염이 된다. 3주간 영양분을 섭취한 자실체는 포자를 퍼뜨린다. 거의 한 종을 숙주로 삼을 수 있는 숫자나 끔찍한 대량학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극도로 한 종이 우세해지는 것을 막는, 밀립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니 익충(益蟲)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수많은 좋은 환경에 적응하고 성(sex)을 선택하면서 진화하지만 그만큼 멸종된다. 인간도 이런 법칙 앞에서는 어떤 특권도 행사할 수 없다. 모든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본 원칙을 간파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지점은 이미 보드리야르가 말했다. "같은 것에 의존하여 사는 자는 같은 것으로 인해 죽는다."



차노희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

“관람객들에게 광주를 얘기하고 싶었다”

첫인상은 참 소탈했다. 질문 하나 하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대답하면서도 겸손함과 부러울만한 큐레이팅 능력도 갖췄다.

김선정(47) 광주비엔날레 공동 책임감독 얘기다. 전시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 감독의 일정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다. 이번 비엔날레 40개국 92명(팀)의 작가들이 내놓는 작품 절반 이상이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인데다, 전시장도 광주 전역으로 펼쳐져 있다. 5명의 아시아 출신 여성 공동 감독과 전시장 조성 임감독 얘기다. 전시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 감독의 일정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쁘다.



김 감독은 8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 9회 광주비엔날레(9월 7일~11월 11일) 기획 의도와 관련, “비엔날레를 보러 오는 관람객들에게 광주를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비엔날레 전시가 여러 곳에서 열린다. 전시장이 분산된 이유는 뭔가.

▲비엔날레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내 선택의 경우 광주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다. 전시 자체가 광주라는 지역에 대한 얘기를, 작가들이 와서 풀어주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비엔날레가 20년이 다 돼가는 데 비엔날레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었다. 또 도심 중심부가 비어있게 되고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됐다는 점에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솔직히 1년 반 안에 전시를 만들어 나가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새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것보다 빨리 와서 잘 보여 주려는 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비엔날레 전시가 여러 곳에서 열린다. 전시장이 분산된 이유는 뭔가. ▲비엔날레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내 선택의 경우 광주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다. 전시 자체가 광주라는 지역에 대한 얘기를, 작가들이 와서 풀어주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비엔날레가 20년이 다 돼가는 데 비엔날레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었다. 또 도심 중심부가 비어있게 되고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됐다는 점에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날레만 보러 온 게 아니라 광주에 있는 다른 작가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겼으면 좋겠다. 설치미술가 양혜규씨가 13회 카셀 도큐멘타(Documenta)에 초청받아 참여하게 된 것도 지난 2010년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진행된 양씨의 전시를 본 카셀 도큐멘타 예술감독(캐롤린 크리스토프 바카르기에프)이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광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작가들이 머 무르며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방식이 적지 않은데.

▲솔직히 1년 반 안에 전시를 만들어 나가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새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것보다 빨리 와서 잘 보여 주려는 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신작 위주 전시는 광주비엔날레만의 차별화 전략

대인시장 등 활용은 지역작가들 세계 알릴 기회

작가들 작품으로 자기표현... 고정관념 깨는 게 중요

특정 장소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다른 기능을 갖기 전의 정지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 그런 공간을 재생시키는 데 예술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와 전망을 갖고 추진했다. 비엔날레 전시관 1층 로비의 리노베이션 작업도 그런 생각에서 이용우 대표에게 제안해 추진하게 됐다.

-왜 대인시장, 광주극장 등의 장소를 택했나.

▲대인시장은 2008년 때도 전시 장소로 쓰였다. 그 뒤로 지역 작가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온 작가들의 작업실이 생기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 또 대인시장을 활용하면 비엔날레의 연관성 뿐만 아니라 광주 작가, 여기에서 작업하는 작가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람객들이 비엔날레만 보러 온 게 아니라 광주에 있는 다른 작가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겼으면 좋겠다.

-그것을 광주비엔날레가 갖는 차별화로 보면 되겠나.

▲한 명이 만든 전시가 아니라 아시아 출신 6명의 감독들의 역할이 녹여 보여지는 전시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그러한 방식과는 다른 방법을 도입하고 싶었다.

-신작 위주의 전시를 꾸미는 이유가 있나.

▲관람객들이 좋아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흥미로운 작업이다. 비엔날레라는 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뤄지는 대단한 전시인데, 길게다 돈을 쏟아붓고 버리면 아까운 것 같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비엔날레가 정말 많은데 광주비엔날레만의 특징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광주비엔날레만을 위한 작품들을 모여서 전시를 꾸민다면 더 좋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광주비엔날레가 갖는 차별화로 보면 되겠나.

▲한 명이 만든 전시가 아니라 아시아 출신 6명의 감독들의 역할이 녹여 보여지는 전시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그러한 방식과는 다른 방법을 도입하고 싶었다.

▲한 명이 만든 전시가 아니라 아시아 출신 6명의 감독들의 역할이 녹여 보여지는 전시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현대미술은 난해하다”는 인식으로 비엔날레에 대한 대중의 심리적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다.

▲꼭 어려운 게 나쁜 것 같진 않다. 그렇다고 큐레이터로서도 관람객들이 예년보다 적으면 부담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전시 감독으로서 좋은 전시였다. 오래 기억되는 전시로 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다루는 내용도 미디어에서 매일 접하는 이슈들과 연관성이 많다.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면 좋을 것 같다.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세계 곳곳에서 오는 작가들은 작품으로 자신들의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둘러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 ‘예술’을 보려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 작품 속에 미학적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은 아름다운 것, 예쁜 것 등의 고정 관념을 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솔직히 평면 작품도 많지 않고 일반 관람객들에게 막연히 떠오르는 옛날 시대 미술도 아니다. 작가들도 신문 섹션처럼 사회·정치·경제적 부분을 다루는 다양한 작가들이 참여하면서 전시가 이뤄진다.

-감독으로서 추천하는 작품이 있다면.

▲다 좋다. 그래도 굳이 꼽으려면 영화를 좋아하는 관람객이라면 크리스 마커(프랑스)의 작품 ‘레벨 파이브’(Level Five)를 권한다. ‘해프닝’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미술사적 의미가 있는 앨런 캐프록(미국)의 작품 ‘밀고 당기기 : 한스 호프만을 위한 가쿠 코미디’도 좋다. 한국 작가인 임동식 씨의 ‘친구가 권유한 방황의 할아버지 고향나무-여덟 방향’도 의미 있는 작품이다. 독일 출신 인리 살라의 비디오 작품 ‘블라블블블 사태’, 보리스 그로이스의 작품도 한번 둘러봐도 할 전시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Advertisement for moviehelic featuring Megabox cinema listings for various locations like Haeinsa, Haeinsa, and Sangju. It includes movie titles like 'The Dark Knight Rises' and 'The Avengers' along with showtimes and contact information.